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김 경 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연결망을 가족 연계, 정서적 연계, 모임 수준으로 구분했으며, 2009년 전국조사 자료를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연계 변인 중에서는 모국가족 접촉 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거가족 크기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본국 가족의 지지망은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는 한편, 한국 '가족'은 지지망으로 작동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또한, 정서적 연계 분석에서는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이 부각되었다. 이 점은 종족 및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람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해야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인다. 모임 분석에서는 본인가족과 배우자가족 모임 변인의 효과가 강조됐으며, 국적별로 분리했을 때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일본 출신의 경우 비가족 모임 연결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혼이주 초기에는 가족연결망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이주 기간이 늘어날 수록 다른 사회연결망의 효과 역시 유의미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단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연결망, 생활만족도, 교량적 연계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2000년 전체 결혼의 3.5%에서 2004년 11.1%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10%를 넘는 비율을 유지해왔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압도적인데 이 비율은 2000년 전체 국제결혼의 59.8%에서 2002년 70.3%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70%를 상회하고 있다. 2010년을 예로 들면 국제결혼은 35,098건으로 전

* 이 논문은 2011년 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김석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신 여성정책연구원의 민무숙, 김이선 선생님, 그리고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 kyungmi60@gmail.com

체 결혼의 10.8%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6,274건으로 76.7%였다(통계청, 2010).

이러한 수치에서 엿보이는 변화 추세를 배경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여성결혼이민자 연구는 2006년 5건, 2007년 19건, 2008년 20건, 2009년 21건, 2010년 30건으로 증가했다.¹⁾ 초기 연구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으나(김상임, 2004; 이해경, 2005),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응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양순미, 2006; 최운선, 2007; 설동훈·윤홍식, 2008; 차승은·김두섭, 2008; 정기선·한지은, 2009; 김순규·이주재, 2010; 김영주, 2010; 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1; 박순희, 2011).

최근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태 분석이나 시론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황정미, 2010; 김이선·민무숙·김경미·주유선, 2011).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관계가 한국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갖는 함의에 주목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자본'으로서 갖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문 및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물론, 국외 이민자연구로 그 범위를 넓혔을 때는 사회연결망적 접근이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 국외연구는 대부분 출신국에서 형성된 사회연결망이 이주 후 일자리나 거주지를 찾는 데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며, 이민자가 목적국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빈약했다(Wierzbicki, 2004; Ryan, 2007). 본 연구는 바로 후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회연결망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사회연결망의 자본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

1)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KISS에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어 '결혼이주여성'을 사용해 제목 검색을 한 결과이다. 이 수치는 전체 관련 논문을 반영하기보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준다.

결망을 가족 연계, 정서적 연계, 모임 수준으로 구분해 이들 연계가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연결망, 사회자본, 그리고 이민자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린과 엔젤(Lin and Ensel, 1999)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 같은 가장 친밀한 층에서 시작해, 친구, 친척 등 중간 수준으로, 그리고 공동체와 같은 외부 층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사회적 연계를 사회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Lancee, 2010). 달리 표현하면, 개인의 사회연결망은 일종의 자본으로 취급될 수 있다(Flap and Völker, 2004).

이러한 맥락에서 학자들은 사회연결망을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해왔다.²⁾ 포테스(Portes, 1995: 12)는 사회자본을 “연결망에 포함된 덕택으로 희소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개인의 능력”으로 표현했으며, 반 더 개그와 스니저스(Van der Gaag and Snijders, 2004: 200)는 “사회연결망 구성원들이 소유한 자원의 집합으로, 사회적 관계의 역사적 결과로써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는 자본으로 기능하는데 그 효과는 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의 유형과 크기에서 나온다(Bourdieu, 1986).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Gidengil and Stolle, 2009). 한 차원은 사회적 관계의 강도 혹은 깊이와 관련되며, 강한 연계와 약한 연계로 구분된다(Granovetter, 1973). 강한 연계는 행위자간 접촉 강도나 빈도가 높은 관계이고, 약한 연계는 접촉 강도나 빈도가 낮은 관계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계는 상이한 효과를 낳는데 강한 연계가 정서 및 물질적 측면에서 지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약한 연계는 ‘정보 획득’ 효과를 지닌다.

다른 차원은 사회적 관계의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결속적(bonding)’ 연계와 ‘교량적(bridging)’ 연계로 구분된다(Putnam, 2000). 교량적 연계가 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면, 결속적 연계는 사회적 배경이

2) 사회자본은 학자들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발전시킨 콜만(Coleman, 1988)은 연결망, 사회규범, 신뢰를 사회자본으로 정의하지만, 여기서는 사회자본 개념을 연결망에 국한시켜 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매우 유사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말한다. 결속적 연계는 이민자에겐 낮은 환경에서의 보호나 위협 관리, 결속력 등에서 도움이 되고, 교량적 연계는 경제적 기회나 다양한 정보 접근 측면에서 유용성을 지닌다(Woolcock and Narayan, 2000). 일반적으로, 강한 연계가 '결속적'이고 약한 연계가 '교량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두 차원이 반드시 겹치는 것은 아니다(Gidengil and Stolle, 2009).

이민자의 사회연결망 연구는 그동안 결속적 연계, 즉 친족이나 인종 공동체가 새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Portes, 1998; Ryan, 2007). 특히, 종족 및 문화적 배경을 공유한 이민자들 간에 형성된 강한 연계가 '자본'으로 기능하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Portes, 1998; Sanders, Nee and Semau, 2002). 즉, 이러한 연계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결속적 관계만 맺는 이민자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Wierzbicki, 2004). 이민자 자신도 목적국 문화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모국인 친구나 친척 역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등 사회연결망 구성원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Bloemraad, 2006). 또한, 종족 및 문화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 모국인과의 관계는 새로운 정보에 노출시키는 경향이 작기 때문에 이민자가 목적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적응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Gidengil and Stolle, 2009).

사실, 사회연결망의 효과를 파악할 때는 역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yan, Sales, Tilki and Siara, 2008). 이주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민자가 직면한 문제가 변화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이민자에게는 가족, 친족 등 유사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강한 연계가 중요하지만, 주류 사회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종족 및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진다(김이선 외, 2011; Ryan, 2007). 그러나 기존 연구는 가족 및 인종 기반의 결속적 연계가 이민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만을 강조해왔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은 한국인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량적 강한 연계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량적 연계의 경우 다양한 정보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약한 연계의 효과가 강조돼 왔지만,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량적 강한 연계의 효과 역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할

때 강한 형태의 결속적 연계 뿐 아니라, 교량적 연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 연구에서 강한 형태의 모국인 연결망과 한국인 연결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과제 1〉 여성결혼이민자가 맺고 있는 강한 형태의 한국인 및 모국인 연결망은 한국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연결망 연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이용균, 2007; 이민아, 2010; 황정미, 2010; 김이선 외,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외국 문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일부 시도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은 다른 이민자 연결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은 가족단위 이민자들과 다르다.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목적국 사회에서도 가족, 친족 등 기존의 강한 연계를 유지한 채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간다면, 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의 강한 연계 대상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가족, 친구 등 사회관계망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김이선 외, 2011).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 외에도 가사 부담으로 인해 가정내 영역을 크게 벗어나기 힘든 특성을 지닌다(김이선 외, 2011). 배우자나 시부모 배려 없이는 가족 외부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은 다른 이민자 연결망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독자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을 다룬 연구들이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사회적 관계의 현황 분석에 집중되고 있다. 이용균(2007)은 국내 최초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했으며,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 전수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조사가 일부 실시되기도 했다. 이용균(2007)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은 가족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고, 가족 외부의 경우에는 주로 모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제약돼 있었

다. 그러나, 2009년 전국조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과의 교류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비가족 사회연결망을 모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비가족, 모국인/한국인 등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할 때 다양한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연결망과 비가족 연결망을 구분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작업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황정미, 2010). 이민아(2010)에 따르면 가족 연결망과 비가족 연결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삶 만족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 연결망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모국인 동료와 같은 비가족 연결망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지지 효과에 관한 논의에서도 가족과 비가족 연계 유형을 구분할 필요성은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 가족의 지지가 결혼생활 안정이나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은 다양한 경험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박미정·엄명용, 2009; 김현숙 외, 2011), 비가족 사회관계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둘러싼 상반된 논의만 존재할 뿐, 지금까지 활발한 경험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비가족 사회연결망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 효과를 가족과 비가족 형태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과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연결망과 비가족 연결망은 한국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2009년 국내 최초로 결혼이민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는 중국(조선족 제외), 베트남,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

자 32,275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출신국가별 비교연구를 위해 3개국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가장 긴 일본 출신을 포함시켰다. 한국내 결혼이민자 규모로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다. 한편, 중국 출신 중 조선족은 가족 및 친척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해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 13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7만 3천여 명(55.9%)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 조사는 조사원이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지는 이민자의 언어적 어려움을 고려해 해당 출신국 언어로 번역해 사용했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1) 종속 변인: 생활만족도

본 연구는 종속 변인으로 한국생활 만족도를 사용했다. 생활만족도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라는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 문항은 5점 척도(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로 구성돼 있는데 역산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2) 사회연결망 변인

사회연결망 변인은 앞서 설정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과 모국인, 가족과 비가족 연계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연구과제 1>인 강한 형태의 한국인 및 모국인 연결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국인 가족과 배우자 가족과의 연계를 변수화했으며, 강한 수준의 정서적 연결망도 한국인과 모국인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시켰다. 또한, <연구과제 2>인 가족 연결망과 비가족 연결망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국인 가족과 배우자 가족 외에 모국인 친구와 지역주민과의 연결망을 변수화해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연결망 변인은 가족 연계, 강한 정서적 연계, 모임 연계 등 세 차원으로 구성했다. 가족 연결망은 동거가족 크기와 본국가족과의 접촉 빈도로 변수화했다. 동거가족 크기 변인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자녀항목 제외)과 자녀 수를 묻는 문항을 이용해 구성했으며, 이들 응답을 합산한 수를 1명 이하, 2명, 3명, 4명, 5명 이상으로 범주화해 사용했다. 본국가족 연계 변인은 ‘귀하는 모국에 있는 가족과 지난 1년간 연락(전화통화, 편지,

e-mail, 인터넷 채팅)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했다. 이 문항은 원래 6점 척도로 구성돼 있으나(일주일에 두 번 이상~전혀 없음), 여기서는 4점 척도(1주일에 1~2번 이상, 한 달에 1~2번, 1년에 1~3회, 전혀 없음)로 재구성했으며, 역산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본국 가족과의 연계 빈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강한 정서적 연결망은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을 묻는 문항을 이용해 변수화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국인만 있는 경우, 한국인만 있는 경우, 모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있는 경우, 아무도 없는 경우로 구분해 사용했다. 즉, 모국인과만 의논하는 경우를 모국인형, 한국인과만 의논하는 경우 한국인형, 한국인과 모국인 둘 다와 의논하는 경우 혼합형, 의논 상대가 없는 경우는 소외형으로 유형화했다.

모임 수준의 사회연결망은 지난 1년간 본인가족 및 친척모임, 배우자 가족 및 친척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한 빈도를 묻는 문항을 이용해 변수화했다. 이 문항은 원래 6점 척도(1주일에 2번 이상~전혀 없음)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는 4점 척도(1주일에 1~2번 이상, 한 달에 1~2번, 1년에 1~3회, 전혀 없음)로 재구성했으며, 역산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모임참석 빈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3)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주 관련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먼저, 연령, 소득, 교육 수준, 거주지역 규모,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범주화하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거주지역 규모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기준(=1)으로 이분 범주화해 사용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 변인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기준(=1)으로 이분 범주화 했다.

또한, 한국어 실력, 거주기간, 차별경험, 국적 등 이주관련 변인도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한국어 실력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등 세 영역에 대한 한국어 실력을 묻는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들 항목은 모두 5점 척도(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로 구성돼 있는데 역산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아지도록 했다. 이들 항목간 신뢰계수는 .906이다. 거주 기간은 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7년 이하, 7년

초과로 범주화해 사용했으며, 차별경험 변인은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해 이분 범주화 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변인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이주 관련 변인을 통제한 채 사회연결망 변인을 순차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4개의 분석모형을 구성했다. 즉, 모형 1에서는 가족연결망 변인의 효과를 측정하고,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각각 강한 정서적 연결망과 모임 연계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고, 모형 4에서는 가족 연계, 정서적 연계, 모임 수준 등 사회연결망 변인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 효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기간, 인구 규모, 문화적 배경 등 출신 국적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으로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³⁾ 먼저,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57.4%로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국(조선족 제외)과 일본 출신은 각각 22.3%, 20.3% 수준이었다.

연령대의 경우 20대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40대 이상은 각각 31.8%, 20.5%였다. 베트남 출신은 20대 비율이 75.5%로 압도적인 한편, 일본 출신은 40대 이상이 76.6%였다. 가구 월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이 약 절반 수준(48.2%)이었고, 2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비율은 각각 28%, 23.8%였다.

3)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료 중 회귀분석 최종모형에 포함된 10,842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변수	구분	국적			전체
		중국	베트남	일본	
연령	20대	19.0	75.5	0.8	47.7
	30대	63.2	22.8	22.6	31.8
	40대 이상	17.8	1.7	76.6	20.5
교육수준	초등 이하	2.2	19.8	0.2	11.9
	중학교	27.3	40.2	0.4	29.2
	고등학교	47.0	35.5	38.8	38.7
	대학 이상	23.5	4.5	60.6	20.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4	29.1	18.3	23.8
	100만~200만원	46.8	50.2	43.9	48.2
	200만원 이상	37.8	20.8	37.8	28.0
거주기간	1년 이하	4.5	4.5	1.0	3.8
	1년~3년	35.4	44.6	8.7	35.3
	3년~7년	32.8	41.3	15.0	34.1
	7년 초과	27.3	9.6	75.3	26.9
본인 취업	해당	23.9	20.2	34.7	24.0
배우자 취업	해당	91.2	89.6	90.9	90.3
대도시 거주	해당	40.7	28.1	25.1	30.3
차별경험	있음	41.0	28.1	31.5	31.7
한국어실력	평균 점수	9.24	8.42	9.02	8.73
사례수		2,421명 (22.3)	6,220명 (57.4)	2,201명 (20.3)	10,842명 (100)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로 29.2%, 대학 이상과 초등학교 이하는 각각 20.1%, 11.9%였다. 국적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 비율은 베트남 출신이 19.8%로 가장 높은 한편, 대학교 이상 비율은 일본 출신이 60.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30.3%였으며, 본인이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 배우자가 '현재 취업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0.3%였다.

한편, 한국 거주기간은 1년~3년 이하 비율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년~7년 이하(34.1%), 7년 초과(26.9%), 1년 이하(3.8%) 순이었다. 특히, 일본 출신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7년을 넘는 비율이 75.3%나 되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표 2> 독립 및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변수	구분	국적			전체
		중국	베트남	일본	
생활만족도	평균	3.63	3.94	3.19	3.72
	(SD)	(0.83)	(0.97)	(0.78)	(0.95)
동거가족 크기	평균	2.74	2.92	3.54	3.01
	(SD)	(0.99)	(1.04)	(1.08)	(1.07)
본국가족 연계	평균	2.66	2.61	2.13	2.52
	(SD)	(0.63)	(0.63)	(0.74)	(0.69)
한국인형	%	32.8	25.9	18.1	25.9
모국인형	%	38.4	51.5	45.7	47.4
혼합형	%	10.6	8.2	31.1	13.4
소외형	%	15.6	12.7	2.4	11.3
본인가족 모임	평균	0.77	0.68	0.62	0.69
	(SD)	(0.79)	(0.86)	(0.64)	(0.80)
배우자가족 모임	평균	1.29	1.42	1.31	1.37
	(SD)	(0.78)	(0.86)	(0.66)	(0.81)
모국인친구 모임	평균	0.98	1.88	2.13	1.73
	(SD)	(1.00)	(1.11)	(1.01)	(1.14)
지역주민 모임	평균	0.36	1.06	0.68	0.83
	(SD)	(0.79)	(1.32)	(0.93)	(1.18)

31.7%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8.73 수준이었다. 중국 출신의 한국어 실력이 9.24로 가장 높은 반면, 베트남 출신은 8.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 및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2>에서 볼 수 있듯 동거가족 크기는 평균 3.01명이었다. 일본 출신이 3.54명으로 가장 크고, 중국 출신이 2.74명으로 가장 작았다. 본국 가족과의 연계 정도는 평균 2.52였으며, 중국 출신이 2.66으로 가장 높고, 일본 출신이 2.13으로 가장 낮았다.

강한 정서적 연계 대상을 모국인과 한국인을 기준으로 유형화했을 때 모국인형이 47.4%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한국인형, 혼합형, 소외형 순이었다. 한국인형에서는 중국 출신이 32.8%로 가장 높았고, 일본 출신은 18.1%로 가장 낮았다. 모국인형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51.5%로 가장 높았고, 중국 출신은 38.4%로 가장 낮았다. 혼합형에서는 일본 출신이 31.1%로 가

장 높았고, 베트남 출신이 8.2%로 가장 낮았다. 소외형은 중국 출신이 15.6%로 가장 높았고, 일본 출신은 2.4%로 가장 낮았다.

유형별 모임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모국인 친구 모임이 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배우자가족 모임, 지역주민 모임, 본인가족 모임 순이었다. 모국인 친구 모임의 참여는 일본 출신이 2.13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 출신이 0.98로 가장 낮았다. 배우자가족 모임이나 본인가족 모임 참여는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주민 모임 참여 수준은 베트남 출신이 1.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출신이 0.36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3개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72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일본 출신이 3.19로 가장 낮았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계와 생활만족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계 변인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모형 1은 동거가족 크기와 본국가족 접촉 빈도 등 가족 연계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고, 모형 2와 모형 3은 각각 강한 정서적 연계와 모임참여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며, 모형 4는 사회적 연계 변인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가족 연계, 정서적 연계, 모임 등 각 변인의 생활만족도 효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준다. 모든 모형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이주 관련 변인을 통제했으며,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가족연계 변인을 포함시킨 모형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동거가족 크기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동거가족 크기가 클수록 한국생활 만족도는 낮았으나,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본국 가족과의 연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본국 가족과의 접촉 빈도가 클수록 한국생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는 강한 정서적 연계 변인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혼합형과 비교했을 때 다른 모든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인형은 정적인 효과를, 모국인형과 소외형은 부적인 효과를 보였다. 즉, 강한 정서적 연계를 한국인과만 형성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강한 정서적 연계를 한국인 및 모국인과 형성한 경우에 비해 생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계와 생활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3.041*** (.078)	3.359*** (.070)	3.151*** (.067)	2.991*** (.082)
동거가족 크기	-.009 (.008)			-.007 (.008)
본국가족 연계	.099*** (.013)			.079*** (.013)
한국인형		.161*** (.027)		.178*** (.027)
정서적 연계		-.075** (.025)		-.072** (.025)
소외형		-.184*** (.033)		-.130*** (.033)
본인가족 모임			.072*** (.011)	.068*** (.011)
배우자가족 모임			.103*** (.011)	.089*** (.011)
모국인친구 모임			.014 [†] (.008)	.024** (.008)
지역주민 모임			.000 (.008)	.001 (.008)
연령대	-.083*** (.017)	-.103*** (.017)	-.083*** (.017)	-.076*** (.017)
교육수준	-.077*** (.011)	-.066*** (.011)	-.076*** (.011)	-.080*** (.011)
가구소득	.215*** (.012)	.220*** (.012)	.208*** (.012)	.196*** (.012)
본인 취업	-.102*** (.020)	-.115*** (.020)	-.098*** (.020)	-.102*** (.020)
대도시 거주	-.012 (.018)	-.013 (.018)	-.012 (.018)	-.017 (.018)
배우자 취업	.142*** (.029)	.150*** (.028)	.138*** (.029)	.139*** (.028)
한국어 실력	.045*** (.004)	.040*** (.004)	.041*** (.004)	.037*** (.004)
거주기간	-.052*** (.012)	-.067*** (.012)	-.059*** (.012)	-.052*** (.012)
차별경험(있음=1)	-.259*** (.018)	-.242*** (.018)	-.259*** (.018)	-.239*** (.018)
국적				
베트남	.257*** (.025)	.254*** (.025)	.224*** (.026)	.239*** (.026)
일본	-.221*** (.031)	-.254*** (.031)	-.283*** (.032)	-.242*** (.033)
F값	178.972***	177.269***	165.961***	137.954***
수정된 R제곱	.176	.185	.186	.202
사례수	10,842	10,842	10,842	10,842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정서적 연계 기준= 혼합형, 출신 국적 기준= 중국(조선족 제외)

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강한 정서적 연계를 모국인과만 맺고 있거나 강한 정서적 연계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모형 3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참여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주 관련 변인을 통제했을 때 본인가족 모임과 배우자가족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본인가족 모임, 배우자가족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에 대한 참석빈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았다. 지역주민 모임 변인의 효과는 제로 수준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모형 1, 2, 3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가족 연계, 강한 정서적 연계, 모임 변인은 사회적 연계 변인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 4에서도 동일한 양상의 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사회연결망 변인들이 독립적으로 고유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 거주 변인을 제외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주 관련 변인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대와 교육수준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대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흥미롭게도, 본인 취업 변인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배우자 취업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본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한편, 배우자가 취업 중인 여성결혼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주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한국어 실력은 모든 모형에서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았다. 한편, 한국 거주기간과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거주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았으며, 차별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중국 출신(조선족 제외)과 비교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일본 출신은 중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신국가별 사회적 연계와 생활만족도

여성결혼이민자를 출신국가별로 구분해 사회적 연계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 연계 변인 중에서는 <표 3>의 3개국 통합

분석과 달리, 동거가족 크기 변인이 베트남과 일본 출신 분석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베트남 출신⁴⁾ 여성결혼이민자 분석에서는 동거가족 크기 효과가 부정적으로, 일본 출신에서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 출신은 동거가족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나, 일본 출신은 동거가족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국 출신의 경우 동거가족 크기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본국 가족 연계는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즉, 3개국 출신 모두 본국 가족과의 접촉 빈도가 클수록 한국 생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한 정서적 연계의 생활만족도 효과가 출신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일본 출신은 3개국 통합 분석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중국과 일본 출신의 경우 강한 정서적 연계를 한국인과만 맺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 및 모국인 모두와 강한 정서적 연계를 형성한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모국인과만 강한 정서적 연계를 맺거나 강한 정서적 연계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혼합형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베트남 출신의 경우에는 3개국 출신 통합분석과 달리, 모국인형의 효과가 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표 4〉에서는 모임참여 변인의 생활만족도 효과가 출신 국적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본인가족 모임과 배우자가족 모임은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 모두 본인가족 모임과 배우자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국인 친구모임 변인의 효과는 한국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중국과 일본 출신 분석에서 유의한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중국과 일본 출신은 모국인 친구모임에 참여하는 빈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 모임 변인의 효과는 모든 출신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한국 거주기간을 분석한 결과, 일본 출신이 평균 114.05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조선족 제외)과 베트남 출신은 각각 46.58개월, 31.51개월 수준이었다.

<표 4> 출신 국가별 사회적 연계와 생활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상수	3.124*** (.144)	3.358*** (.108)	1.557*** (.194)
동거가족 크기	-.023 (.016)	-.023* (.012)	.037* (.015)
본국가족 연계	.084** (.026)	.087*** (.019)	.066** (.023)
한국인형	.152** (.051)	.243*** (.044)	.156*** (.044)
정서적연계	-.139** (.050)	.023 (.041)	-.104** (.034)
소외형	-.124* (.060)	-.060 (.050)	-.346** (.102)
본인가족 모임	.091*** (.021)	.064*** (.014)	.068** (.025)
배우자가족 모임	.090*** (.021)	.095*** (.014)	.070** (.024)
모국인친구 모임	.028† (.016)	.006 (.011)	.052*** (.015)
지역주민 모임	.006 (.020)	.002 (.010)	.014 (.017)
연령대	-.090** (.028)	-.070** (.025)	-.124** (.042)
교육수준	-.049* (.021)	-.100*** (.015)	.081** (.030)
가구소득	.151*** (.024)	.191*** (.017)	.235*** (.022)
본인 취업	-.087* (.039)	-.129*** (.030)	-.073* (.033)
대도시 거주	-.008 (.032)	.021 (.026)	-.124*** (.035)
배우자 취업	.240*** (.058)	.103** (.039)	.146** (.054)
한국어 실력	.025*** (.006)	.031*** (.005)	.069*** (.007)
거주기간	-.068** (.021)	-.053** (.017)	.006 (.029)
차별경험(있음=1)	-.228*** (.032)	-.287*** (.026)	-.141*** (.032)
F값	24.187***	39.172***	34.277***
수정된 R제곱	.147	.099	.214
사례수	2,421	6,220	2,201

주: † p<.10, * p<.05, ** p<.01, *** p<.001, 정서적 연계 기준 = 혼합형

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연결망 변인을 가족 연계, 강한 정서적 연계, 모임 수준으로 구분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가족연계 변인은 동거가족 크기와 모국가족 접촉 빈도로 구성했으며, 강한 정서적 연계 유형의 경우 한국인형, 모국인형, 혼합형, 소외형으로 구분하고, 모임 변인은 본인가족 모임, 배우자가족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주민 모임에 대한 참석 빈도로 구성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연계 변인 중에서는 본국가족 연계만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본국에 있는 가족과 접촉하는 빈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국적 네트워크가 정서적 지지망으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국적 네트워크 기반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계를 넘어 지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동거가족 크기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동거가족은 접촉빈도는 강하지만, 강한 연계에서 보여주는 정서적 지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목적국에서 새롭게 형성한 ‘가족’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지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은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부부 및 가족간 상호작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김현숙 외, 2011). 다시 말해, 정서적 지지는 강하고 두터우며,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Ryan et al., 2008),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돌봄과 양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존재이다. 이는 젠더에 따라 사회연결망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관계는 그 자체가 정서적 지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지지’ 효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질과 내용이 담보될 때 발생한다(House, Landis and Umberson, 1988).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거가족 크기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본국 가족과의 연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본국 가족의 지지망 효과는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는 한편, 한국에서 형성한 ‘가족’은 지지망으로 작동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출신국가별 분석에서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됐다. 즉, 베트남 출신은 동거가족 크기가 생활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 출신은 동거가족 크기가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한국 거주기간이 미치는 간접효과에 주목해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경우 양변적 가족문화에 익숙하고 부모 부양, 가사 및 자녀 양육 등에 있어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부장 문화를 지닌 한국 가족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스런 존재일 수 있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의 간접 효과에 주목해볼 수 있는데 거주기간은 한국어 실력이나 ‘한국 엄마’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매개할 수 있다. 한국어 실력이 가족간 의사소통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가족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한국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한국 거주기간이 가장 긴 일본 출신에서 동거가족 크기가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⁵⁾

강한 정서적 연계 유형 분석에서는 한국인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강한 정서적 연계를 한국인 및 모국인과 맺고 있는 ‘혼합형’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형’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모국인형과 소외형은 혼합형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교량적 속성은 새로운 기회나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약한 연계의 힘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인식돼 왔다(Gidengil and Stolle,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주류사회 구성원들과의 강한 연계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이 부각되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 정서적 지지망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이 누구인지, 즉 가족인지 비가족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은 ‘한국인’이 생활 기반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인다.

한국인형의 효과는 출신국가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출신국에 상관없이 한국인형의 생활만족도는 혼합형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소외형의 생활만족도는 혼합형에 비해 대체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모국인형의 효과는 출신국별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모국인형의 생활만족도는

5) 베트남과 일본 출신의 동거가족 크기가 각각 평균 2.92, 3.54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도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출신의 경우 동거가족 크기에서 오는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아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출신의 경우 유의하게 낮은 반면, 베트남 출신은 모국인형의 생활 만족도가 혼합형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임 수준 분석에서는 배우자가족 모임과 본인가족 모임의 효과가 강조되었다. 이들 모임의 참석빈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크기를 비교하면 배우자 가족모임($\beta=.076$), 본인가족 모임($\beta=.058$) 순이었다. 배우자가족 모임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겐 '한국 가족'과 한국 생활을 이해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신국별 분석에서도 본인가족 모임과 배우자가족 모임 변인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흥미롭게도, 모국인 친구모임은 한국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본과 중국 출신 분석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일본과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모임 외에도 모국인 친구모임에 참석하는 빈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

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을 가족 연계, 정서적 연계, 모임 수준으로 구분해, 이들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가 지닌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초국적 가족연계가 지지망으로 작동하는 측면과 '한국 가족'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본국 가족 연결망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 '지지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가족'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가족 연계가 지지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질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사회연결망의 효과가 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을 시사했다. 이 점은 특히 출신국가별 분석에서 드러났다. 한국 평균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베트남 출신의 경우에는 가족연결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한편, 한국 거주기간이 각각 4년, 9년 이상인 중국 출신과 일본 출신은 가족 뿐 아니라 비가족 연결망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중국과 일본 출신의 경우 모국인 친구모임에 대한 참석 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혼이주 초기에는 가족연결망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이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다른 사회연결망의 효과 역시 유의미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출신국별 분석이 필요한 측면도 강조했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는 문화적 배경 뿐 아니라, 거주기간, 인구 규모 면에서 국적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한데 묶어 분석하는 기

준 방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점은 3개국 통합 분석과 국적별 분석이 다소 상이한 결과를 드러낸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국적별 접근 방법은 출신국 집단의 거주기간 차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장기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는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에서 교량적 약한 연계의 힘이 강조됐다면, 본 연구에서는 교량적 강한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은 문화 및 종족적으로 이질적인 사람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동거가족 크기 효과가 젠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젠더와 사회연결망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외국 학계에서는 이미 젠더와 사회연결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Burt, 1998; Van Emmerik, 2006),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연구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사회적응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를 적절한 변수로 측정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본 연구는 사회적응을 생활만족도 측면에 국한시켜 접근했다. 즉, 사회적응의 다면성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도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을 크게 가족과 비가족, 한국인과 모국인으로 구분해 분석했지만, 이들이 상호 교차되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한국인과 모국인 연결망의 효과가 비가족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인 친구 연결망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지는 자료의 제약상 밝혀낼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은 이미 결정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으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17-48.
- 김순규·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영주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출산 양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51-73.
- 김이선·민무숙·김경미·주유선 (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 박미정·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박순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1): 89-109.
-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 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이용균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정기선·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차승은·김두섭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한국인구학》 31(3): 131-157.
- 최운선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통계청 (2010) 《2010년도 혼인통계》

-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 Bloenraad, I. (2006) *Becoming a Citizen: Incorporating Immigrants and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Press.
- Burt, R. S. (1998) “The Gender of Social Capital” *Rationality & Society* 10(1): 5-47.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Flap, H. D. and B. Völker(eds.) (2004) *Creation and Return of Social Capital* London: Routledge.
- Gidengil, E. and D. Stolle (2009) “The Role of Social Networks in Immigrant Women’s Political Incorpo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4): 727-763.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ouse, J. S., K. R. Landis and D. Umberson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 Lancee, B. (2010) “The Economic Returns of Immigrant’s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202-224.
- Lin, N., X. Ye and W. Ensel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Portes, A.(ed.)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yan, L. (2007) “Migrant Women, Social Networks and Motherhood: The Experiences of Irish Nurses in Britain” *Sociology* 41(2): 295-312.
- Ryan, L., R. Sales, M. Tilki and B. Siara (2008)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 and Social Capital: The Experiences of Recent Polish Migrants in London” *Sociology* 42(4): 672-690.
- Sanders, J., V. Nee and S. Semau (2002) “Asian Immigrants’ Reliance on Social Ties in a Multiethnic Labor Market” *Social Forces* 81(1): 282-314.
- Van der Gaag, J. and B. Snijders (2004) “Proposals of the Measurement of Individual Social Capital” pp. 192-218 in *Creation and Return of Social Capital*, edited by H. Flap and B. Volker, London: Routledge.
- Van Emmerik, H. (2006) “Gender Difference in the Creation of Different Types of Social Capital: A Multilevel Study” *Social Networks* 28: 24-37.
- Wierzbicki, S. (2004) *Beyond the Immigrant Enclave: Network Change and Assimilation* New York: LFB Scholarly Publishing.
- Woolcock, M. and D. Narayan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Married Immigrant Women's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e Case of Women from China, Vietnam, and Japan

Kyungmi Kim

This study examines how married immigrant women's social networks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in Korea. A multiple-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using data from Nationwide Multicultural Family Survey in 2009.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keeping in touch with their family in the mother country significantly affects the level of satisfaction, while the family size in Korea is not making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strength of "Korean Network" - strong bridging network - is highlighted. Third, family gathering variables affect the level of satisfaction. An interesting point is found from the nationality segmentation. The case of women from Japan, with the longest duration in Korea, shows that both of the family and the non-family gathering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It is interpreted that family network dominates in the earlier stage of marriage, but the other social networks also play the role as the duration extends.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Network, Life Satisfaction, Bridging Network